

석유제품, 수출 효자품목 굳건히

무역협회, 반도체 · 자동차 · 휴대폰 · 선박과 5대 수출품목 진입

2006년에는 고유가, 원화강세 지속 등의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 증가세 지속,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10-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고유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무역흑자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감소해 2년 연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가 11월30일 <무역의 날>을 앞두고 펴낸 <2005년 무역평가와 2006년 전망>에 따르면, 2006년 세계 교역은 2005년과 비슷하게 7%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2005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은 2005년 하반기와 2006년에 걸쳐 전반적인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추가절상 가능성, 일본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원화는 대체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이 모두 2자리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플래시 메모리 수출호조, 자동차는 신차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상승, 휴대폰은 미국 및 유럽의 신제품 수요 증가로 호조가 예상되고 있다.

2005년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해 연말까지 2800억달러를 크게 상회하나 고유가 등으로 수입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무역수지 흑자가 2004년의 294억달러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규모는 12월초 5000억달러를 돌파해 2004년 수출 2000억달러를 달성할데 이어 2005년에는 교역규모 5000억달러 시대라는 또다른 신기록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선박, 석유제품 등 이른바 5대 품목이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2003년 이후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수출이 24.8% 증가했으며 미국은 4.2% 감소했고, 일본은 11.8% 증가했다.

<화학저널 2005/11/24>